

본문말씀

창세기 29장~32장

Since Oct. 10, 2011
예외 한인 장로회
하나님의 사랑교회

제 29 장

야곱이 라반의 집에 이르다

- 1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 2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 3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 4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 5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훔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 6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 7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 8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떼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 9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 10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
- 11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 내어 울며
- 12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 13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들이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 14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 15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삷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 16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 17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 18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칠 년을 섬기리이다
- 19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 20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칠 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칠 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다
- 21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 22 라반이 그 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 23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 24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 25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이까
- 26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 27 이를 위하여 칠 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칠 년 동안 섬길지니라

- 28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칠 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 29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 30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칠 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야곱에게 아이들이 생기다
- 31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 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 32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1)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 33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
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2)시므온이라 하였으며
- 34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3)레위라 하였으며
- 35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4)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제 30 장

- 1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 2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 3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 4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 5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 6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1)단이라 하였으며
- 7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 8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2)납달리라 하였더라
- 9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 10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 11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3)갓이라 하였으며
- 12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 13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4)아셀이라 하였더라
- 14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환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환채를 청구하노라
- 15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나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환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환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 16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환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 17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 18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5)잇사갈이라 하였으며

19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20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6)스불론이라 하였으며

21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22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23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24 그 이름을 7)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야곱이 라반과 품삯을 정하다

25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26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27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28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29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30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떼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31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 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32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 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 33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 34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 35 그 날에 그가 숫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의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 36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 떼를 치니라
- 37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평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 38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 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 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배니
- 39 가지 앞에서 새끼를 배므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 40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 41 튼튼한 양이 새끼 뱌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 떼의 눈 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배게 하고
- 42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 43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 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제 31 장

야곱이 라반을 떠나다

- 1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 2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 3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 4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 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 5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 6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 7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 8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샅이 되리라 하면 온 양 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샅이 되리라 하면 온 양 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 9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 10 그 양 떼가 새끼 뱌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 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 11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 12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 보라 양 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 13 나는 베엘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 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 14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 15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 16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 17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 18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새
- 19 그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 20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 21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 22 삼 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 23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칠 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 24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 25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 26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 27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 28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 29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제 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 30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 31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 32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 33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 34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 35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 36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새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 37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 38 내가 이 이십 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
떼의 숫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 39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40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41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이십 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십사 년, 외삼촌의 양 떼를 위하여 육 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열 번이나 바꾸셨으며
42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과 라반의 언약

- 43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 떼는 내 양 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44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45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46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47 라반은 그것을 1)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2)갈르엣이라 불렀으니
48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49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50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51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52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 53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 54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 55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제 32 장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다

- 1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 2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 3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 4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 5 내게 소와 나귀와 양 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 6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사백 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 7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 8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 9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 10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떼나 이루었나이다
- 11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 12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의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브니엘에서 씨름을 하다
- 13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 14 암염소가 이백이요 숫염소가 이십이요 암양이 이백이요
숫양이 이십이요
- 15 젓 나는 낙타 삼십과 그 새끼요 암소가 사십이요 황소가
열이요 암나귀가 이십이요 그 새끼 나귀가 열이라
- 16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 17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 18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 19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 20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 주리라 함이었더라
- 21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 22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압북
나루를 건널새

- 23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 24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 25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 26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 27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 28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1)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 29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 30 그러므로 야곱이 그 곳 이름을 2)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 31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 32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찼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